

주제	"평화로운 미래 프로젝트"
평가 주제	가. 동아시아 각국의 입헌 노력 (교과서 136 참고) 나. 동아시아 각국의 근대화 운동 (교과서 130~133 참고) 다. 반제·반전을 위한 국제 연대 (교과서 152 참고)
가이드	수연 학생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된 주제와 교과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제, 제시문을 전부 참고하여 예상 답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참고 사항일 뿐이며, 수행평가 당일 문제와 제시문이 교과서상 문제와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내드린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추가적으로 교과서를 참고하여 수행평가 당일 답안을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가. 동아시아 각국의 입헌 노력

(교과서 136p) 동아시아 각국은 근대 국민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1889년에 「일본 제국 헌법」을, 대한 제국은 1899년에 「대한국 국제를, 중국은 1908년에 「흙정헌법대강」을 제정하여 헌정 체제를 갖추었다. 동아시아 삼국의 헌정 체제를 비교해 보자.

- 자료 1 : 일본 「대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
- 자료 2: 대한제국 「대한국 국제」
- 자료 3: 중국 「흙정헌법대강」

1) 자료 1부터 자료 3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해보자.

자료1의 '대일본 제국 헌법'과 자료 2의 '대한국 국제', 자료 3의 '흙정헌법대강'은 모두 황제 중심적이고 황제에게 대부분의 권력을 쥐어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대일본 제국 헌법'의 경우에는 '천황이 통치하며 입법권을 실행하고 군대를 통솔하며, '대한국 국제'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대황제가 무한한 군주권, 군대 통솔권, 법률 제정 및 감형권을 갖고 있으며, '흙정헌법대강'의 경우에는 대청 황제가 대청 제국을 통치하며 영원히 군림한다는 조항을 갖고 있다.

2) 자료 1부터 자료 3이 반포된 배경과 그 결과를 알아보자.

- 자료1의 대일본 제국 헌법이 반포 배경 : 메이지 정부가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늘어난 농민들의 봉기와 개혁으로 인해 봉건적 특권을 빼앗긴 옛 무사 계층인

사족층의 반란이 일어났다. 그들이 정부의 전제 정치를 반대하고 서양식 입헌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자유 민권 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메이지 정부가 자유 민권 운동을 탄압 하긴 하였으나 일부 수용하여 '대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 자료1의 대일본 제국 헌법 반포 결과 : 메이지 헌법 제정 이듬해에 중의원 선거를 시행하여 제국 의회를 설립하는 등 입헌 제도의 틀이 완성되었다. 또한 입헌 군주제에 바탕을 둔 근대 국가의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천황을 신성 불가침한 존재로 규정하고 군 통수권과 입법권 등 막강한 권한을 천황에게 부여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 자료2의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 배경 :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이 실추된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거행한 황제 즉위식과 고종의 대한제국 수립 선포 후 황제 중심의 근대 국가를 수립하였다.

- 자료2의 대한국 국제 반포 결과 : 국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으며 황제의 무한한 권리만 강조한다는 한계가 있다.

- 자료3의 흥정헌법대간이 반포된 배경: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의 지식인들은 입헌파와 혁명파로 나뉘었다. 입헌파는 입헌 군주제의 시행을 주장한 반면, 혁명파는 민주 공화제의 국가 수립을 주장하며 무장봉기를 추진하였다. 이 무렵 청 정부는 일본과 서양 각국을 시찰하고 입헌 준비에 나서 '흥정헌법대강'을 반포하고 의회 설립을 준비하였다.

- 자료3의 흥정헌법대간이 반포 결과 : '흥정헌법대강' 반포에도 불구하고 내각이 황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청 정부의 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1911년 후베이성 우창에서 혁명파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신군이 봉기하는 신해혁명이 발발하였다. 이에 호응한 각 성이 봉기하여 청의 지배를 거부하고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하는 중화민국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나. 동아시아 각국의 근대화 운동

(교과서 130p) 양무운동과 변법자강운동

자료 1 : 이홍장 전집

자료 2 : Kangyuei 전집

1) 자료 1과 자료 2가 추구하는 근대화 방법의 차이점을 말해보자.

자료 1은 양무운동을 나타내는데, 양무운동은 '중체서용'을 내세워 중국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군사력과 과학 기술을 수용하여 자강을 이루려는 방법이다. 이와 달리 자료 2에 해당하는 변법자강운동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모든 분야에서 근대 개혁을 추진하자는 방식으로, 과거제 폐지와 신교육 실시, 상공업 진흥, 입헌 군주제 도입 등을 시도하였다.

2) 자료 1과 자료 2와 관련 있는 근대화 운동의 추진 결과를 알아보자.

자료 1의 양무운동은 근대적 군수 공장 설립, 서양식 해군 창설, 근대적 기업 설립 등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의식이나 제도 개혁 등이 뒷받침 되지 못해 중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자료 2의 변법자강운동은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의 반발에 부딪혀 100여 일 만에 실패하였다.

(교과서 133p) 동아시아의 근대화를 이끈 인물

개항 후 동아시아 각국은 서양 문물을 수용하여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동아시아 각 국에서 근대적 개혁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의 활동을 통해 그들이 추구했던 근대화의 모습을 살펴보자.

-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을 주장한 오키보 도시미치
- 개혁만이 나라를 지키는 길임을 강조한 김옥균
- 스스로 변화할 것을 주장한 량치차오
- 동유운동을 주도한 판보이쩌우

1) 각 인물이 주도한 대표적 근대화 운동을 찾아보자.

- 오키보 도시미치 : 오키보 도시미치는 메이지 유신을 이끌어 메이지 정부의 개혁을 주도하였다. 또한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원수를 만나 국서를 전달하고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양 각국의 제도와 문물을 조사하여 메이지 정부가 서구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경험은 메이지 정부가 근대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 김옥균 : 김옥균은 급진 개화 세력으로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서양의 과학 기술은 물론 근대 사상과 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김옥균이 속하는 급진 개화파는 청의 내정 간섭으로 개혁이 더디게 진행되자 일본의 지원을 받아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그리고 개혁 정강 14개조를 발표하여 청에 대한 사대 관계 폐지, 신분제 폐지, 조세 제도 개혁 등의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 량치차오 : 량치차오는 청·일 전쟁의 패배로 양무운동의 한계가 드러나자 청의 낡은 제도가 패배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변법자강 운동을 전개하였다. 변법자강 운동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모든 분야에서 근대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과거제 폐지와 신교육 실시, 상공업 진흥, 입헌 군주제 도입 등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개혁은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의 반발에 부딪혀 100여 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 판보이쩌우 : 판보이쩌우는 글을 많이 써서 프랑스의 식민통치 하 베트남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국민들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베트남 젊은이들의 외국 유학을 장려하라는 중국의 량치차오의 조언을 듣고 베트남의 젊은 학생들을 일본으로 유학 보내는 동유운동을 이끌었다.

다. 반제·반전을 위한 국제 연대

반제·반전을 위해 국제 연대를 주장한 사람들을 조사해보자.

- 아주 화친회 : 아주 화친회는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 연대 조직으로 도쿄에서 창립하였다. 아주 화친회는 아시아 각 민족의 독립을 위해 상호 원조와 협력을 표방하며 반제국주의 세력의 연합을 추구하였다. 아주 화친회는 창립을 주도한 장병린을 비롯하여 고토쿠 슈스이, 조소앙, 판보이쩌우 등 동아시아 각국의 지도자와 유학생 등이 참가하여 국제 연대를 이루었다.
- 안중근 : 안중근은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여 일본의 한국 침략 포기과 한·중·일의 상호 협력 등을 주장하여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였다.
- 아시아 민족 반일 대동당 : 1910년 이후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한 한국인들은 신규식, 조소앙, 천치메이, 천리푸 등을 구성으로 하여 한국인과 중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 조직인 아시아 민족 반일 대동당을 조직하여 항일 연대 활동을 벌였다.
- 동아시아 무정부주의자 : 동아시아 무정부주의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동방 무정부 주의자 연맹, 항일 구국 연맹 등을 창설하였다.
-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 일본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일본인 반전 운동가들과 연대 활동을 벌였으며,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함께 반제·반전 운동을 하였다.
- 후세 다쓰지 : 변호사였던 후세 다쓰지는 기소된 한국인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는 등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 하세가와 데루 : 침략 전쟁이 길어지면서 중국 내 일본인의 반전 연대 활동도 전개되었는데, 하세가와 데루는 상하이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대일 방송을 하였다.
- 일본 병사 반전 동맹 : 일본 병사 반전 동맹은 일본군에 투항과 탈영을 호소하였다.

참고 자료 1. 미래엔 동아시아사 교과서

가. 동아시아 각국의 입헌 노력 - 교과서 pp. 134-136 /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 참고

나. 동아시아 각국의 근대화 운동 - 교과서 pp. 130-133 / 근대화 운동의 전개 참고

다. 반제·반전을 위한 국제 연대 - 교과서 p. 152 / 반제·반전을 위한 국제 연대 참고

참고 자료 2. 판보이쩌우의 동유운동

내용 : 판 보이 찌우(Phan Boi Chau, 潘佩珠 1867~1940)는 1904년 중국의 개혁가로서 일본에 망명하고 있던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를 만난 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권유를 받았다. 그것은 글을 많이 써서 프랑스의 식민통치 하 베트남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는 것과 국민들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베트남 젊은이들의 외국 유학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량치차오의 조언에 따라 판 보이 찌우는 1905년 반 프랑스 운동의 재원을 마련하고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일본으로 향했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에 성공하였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한 아시아 국가였다.

1906년 3명의 학생이 일본으로 유학한 이래 그 수는 점차 증가하여 1907년에는 100여명에 달했고, 1908년에는 200명을 넘었다. 베트남 학생의 이런 일본 유학을 베트남 역사에서는 동유운동(東遊運動, Dong Du Movement)이라고 한다.

한편 1908년 하노이에서 프랑스 장교에 대한 독살계획이 있었으나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에 프랑스 식민정부는 배후세력으로 동유운동에 참가한 유학생들을 지목하여 1909년 일본 정부에 베트남 유학생을 추방하라는 요청을 했다. 프랑스의 요청을 받아들인 일본이 베트남 유학생을 추방하면서 일본 유학 중이던 베트남 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오거나 중국, 홍콩 등으로 망명하는 등 내부적 동요를 겪으며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판 보이 찌우도 홍콩으로 망명하면서 결국 동유운동은 실패로 끝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동유운동 [Dong Du Movement, 東遊運動]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